

Pussy Riot 사건을 통해 본 러시아 젠더 담론의 지형

- 젠더, 민족주의, 소비에트 노스텔지어

안 지 영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2012년, 모스크바의 구세주성당에서 ‘펑크기도’라는 이름의 게릴라식 공연을 벌인 후 2년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의 페미니스트 록 그룹 ‘푸시 라이어트’ 사건은 러시아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서구의 상호이해, 현대 러시아 사회 안에 내장된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기억들을 드러내며, ‘남성중심적 민족주의’로 요약될 수 있을 현대 러시아 젠더담론의 복잡한 지형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명해주었다. 이 글은 ‘푸시 라이어트’의 ‘펑크기도’ 공연의 배경과 성격, 그리고 멤버들의 체포와 재판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어 러시아와 서구의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살핀 후,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젠더담론,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 위에 세워진 현재 푸틴 러시아 젠더 담론의 지형을 짚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푸시 라이어트, 러시아 젠더담론, 민족주의, 소비에트 노스텔지어, 푸틴

I. 들어가며

2013년 4월, 독일의 하노버 산업박람회 관람을 마친 러시아의 푸틴(Владимир

www.kci.go.kr

Путин) 대통령이 차에 타려던 순간, 상반신을 노출한 우크라이나 페미니즘 단체 페멘(FEMEN)의 회원들이 푸틴독재를 비난하는 격렬한 욕설을 맨 살 위에 쓴 채 그에게 달려들었다.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를 비롯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이 짧은 순간에 푸틴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들어 보이며 특유의 냉담한 미소로 반응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공개되었다.¹⁾ 페멘의 회원들은 2012년 러시아정부가 러시아 페미니스트 록그룹 ‘푸시 라이어트(Pussy Riot)’를 체포하고 투옥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있기 1년여 전인 2012년 2월, ‘푸시 라이어트’의 멤버들은 모스크바 구세주성당에 잠입하여 알록달록한 색깔의 복면을 쓰고 전자기타를 치며 “성모 마리아여! 푸틴을 내쫓으소서!”라는 정교성가풍의 노래를 부르다가 교회관계자들과 보안요원들에게 저지를 당했다. 유튜브에서 회자되는 ‘Pussy Riot gig at Christ Savior Cathedral(original video)’이라는 1분 34초짜리 영상²⁾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이는 공연이라고 부르기도 힘들만큼 엉성하고 짧은 해프닝이었다.

이 짧은 해프닝을 징후적인 사건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었다. 우선, ‘푸시 라이어트’의 훨씬 도발적인 퍼포먼스들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던 러시아정부가 이 공연에 참여한 멤버들을 즉각 체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이들은 2년형을 언도받고 실제로 형을 살았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조치는 러시아 내에서 뿐 아니라 서구의 언론과 페미니즘 단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앞서 언급한 하노버의 페멘그룹 사건과 같은 항의시위들이 서방세계 곳곳에서 일어났고, 미국과 유럽에 팽배한 反리/反푸틴정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소리들을 엄청난 규모로 증폭시켰다. 미국정부와 유럽의 외교수석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이들을 양심수로 분류했으며, 메르켈총리는 2012년 12월 방러 당시 공식기자회견석상에서 푸틴에게 ‘푸시 라이어트’에게 2년 형을 선고한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³⁾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마돈나

1) <https://www.youtube.com/watch?v=fK4PcBSDFiA>

2) <https://www.youtube.com/watch?v=grEBLskpDWQ&nohtml5=False>

(Madonna), 비요크(Bjork), 폴 맥카트니(Paul McCartney) 등 서방의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푸시 라이어트’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푸시 라이어트’는 자국에서는 러시아를 위협하는 서구의 지지를 등에 업은 채 불온한 사상을 유포하고, 공명심에 불타 저속한 짓을 서슴지 않는 괴롭치하고 이기적인 여자들이 되었고, 서구에서는 극악무도한 독재자 푸틴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자유를 외치는 페미니스트 여성전사들로 일약 스타가 되었다.

그리하여 고작 1분짜리 해프닝에 불과한 ‘푸시 라이어트’ 사건은 어디선가 갑자기 쏘아 올려진 조명탄처럼 소위 말하는 신냉전시대 러시아 젠더담론의 깊숙한 곳까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사실 옷통을 벗어 던진 채 말을 타고, 전투기를 조종하고, 상당한 수준의 유도 유단자로 이름을 날리며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테다’라는 식의 강경발언과 행위로 언론을 물들이는 푸틴의 ‘남성주의’ 전략이 푸틴 정부의 노골적인 국가/민족정체성 만들기 작업의 일환인 것은 부주의한 관찰자의 눈에도 명백하다. ‘(누구도 알 볼 수 없는) 강한 러시아’, ‘힘’, ‘남성성’, ‘러시아성’, ‘애국심’, ‘가부장적 질서’, ‘(서구의 타락한 모럴과는 비교될 수 없는) 공고한 윤리성’ 등은 푸틴 정부 담론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이다.

하지만 ‘푸시 라이어트’ 사건이 조명해 주는 러시아 젠더 담론의 지형을 ‘가부장적 남성주의 전략을 추구하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의 페미니즘 억압 상황’으로 요약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우선 ‘푸시 라이어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말, 말, 말’ 들을 살필 때 가장 기이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러시아와 서구의 전혀 다른 반응이다.

‘푸시 라이어트’의 이야기는 분명 서구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이다. 서구의 저널리스트, 정치인, 유명인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용감한 러시아 페미니스

-
- 3) 푸틴은 메르켈총리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 수 없으면서” 판단하는 그녀를 비난하며, ‘푸시 라이어트’의 멤버가 이 사건 이전에 벌인 반유대주의 퍼포먼스를 예로 들며 “우리는 반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다”는 독설로 메르켈 총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정작 퍼포먼스의 참여자들은 푸틴의 지적이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관하여는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2/nov/16/vladimir-putin-angela-merkel-pussy-riot>를 참조하십시오.

트들의 젊음과 저항에 고무되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은 이 젊은 여인들의 메시지의 핵심에 완벽하게 공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심지어 가장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지닌 러시아인들에게조차도 이 사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여론조사와 몇 달 동안 이어진 격렬한 토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보수적인 국가의 모든 개인들은 실제로 ‘푸시 라이어트’ 퍼포먼스의 의미를 납득하기 힘들다.⁴⁾

민스크와 빌니우스 소재 유럽인문대학교 젠더연구소의 설립자이자 학문으로서의 러시아페미니즘의 기반을 닦은 러시아 페미니즘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엘레나 가포바(Елена Гапова) 역시 이러한 상황을 지적한다.

서구의 미디어시장에 기가 막히게 ‘조준 되어있는’ 이 사건의 의미는 서구에서는 정치적인 것(표현의 자유, 정권과의 투쟁),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것(girrrlpower!)으로 해석되었다. 서구의 해석과 달리 러시아에서 논평가들은 무엇보다 ‘안티 푸틴적’ 측면, 종교적 측면(종교와 신앙), 법률적 측면(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논하고 예술학자들은 공연의 예술적 측면에 주목한다. 페미니즘단체들은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그들이 벌인 범법행위에 비해 과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행위 자체에는 명백한 거리를 둔다. 그리고 대중의 대다수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정치적인 범주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서 왜 페미니즘(그리고 부분적으로는 LGBT)이 문제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⁵⁾

그리하여 ‘푸시 라이어트’ 사건의 전말을 읽어가다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사건은 단순히 ‘현재’의 사건이 아니며,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리들은 신냉전의 상황, 러시아 사회 안에 내장된 소비에트와 포스트 소비에트의 기억,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호모-소비에티쿠스’들의⁶⁾ 개

4) Marina Yusupova, “Pussy Riot: A Feminist Band Lost in History and Translation,” *Nationalities Papers* 42:4, 2014, p. 604.

5) Елена Гапова, “Дело «PussyRiot»: феминистский протест в контексте классовой борьбы,” *Неприкосновенный запас* №5(85), 2012(<http://www.nlobooks.ru/node/2794>).

6) 주지하다시피, ‘호모 소비에티쿠스(Homo Sovieticus)’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

인적인 기억들과 뗄 수 없이 연동되어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관심이 향해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에 먼저 ‘푸시 라이어트’ 공연의 배경과 성격, 체포, 재판의 과정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러시아와 서구 언론의 반응을 살피고, 조명탄처럼 쏘아 올려진 이 사건이 드러내주는 바, 그 이면에 자리한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젠더담론,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 위에 세워진 현재 푸틴 러시아의 젠더 담론의 지형을 짚어 보고자 한다.

II. ‘Punk Prayer’ 사건의 전말: 그들은 누구인가?

‘푸시 라이어트’는 2007년에 결성된 전위예술그룹 ‘바이나(Война - 전쟁)’의 멤버 중 일부가 2011년에 만든 여성 록그룹이다. ‘푸시 라이어트’ 결성 이전 ‘바이나’의 멤버들은 페테르부르크 네바강 다리 위에서 성기를 색칠하고, 동물학박물관에서 그룹섹스를 벌이고,



‘Punk Prayer’ 영상의 한 장면

고, 대형마켓에서 목을 맨 게이와 외국인 노동자로 분해 마켓 곳곳에 자살자처럼 매달려있는 등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간간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그룹의 열성적인 멤버였던 나데쥬다 콜로콘니코바(Надежда Колоконникова)는 2011년에 ‘푸시 라이어트’라는 자극적인, 그러나 많은 러시아인들에게는 낯선 명칭으로⁷⁾ ‘페미니스트’ 그룹을 결성하였고, 지하철, 붉은 광장 등에서 산발적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키워낸 평균적인 인간을 뜻하는 다소 비판적인 용어이다. 이 용어는 동명의 책을 쓴 소비에트의 작가이자 사회학자인 알렉산더 지노비예프(Александр Зиновьев)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

7) ‘Pussy(성기의 은어) Riot(폭동, 반란)’이라는 그룹 명칭은 ‘Riot grrl’이라는 1990년

인 게릴라식 공연을 벌여왔다. 2011년 7월, ‘푸시 라이어트’는 한 웹사이트에 등록하며 그룹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정치적인 페미니스트 펑크 그룹. 2011년 봄에 결성. 멤버들의 정치적 정향 점은 다음과 같다. 페미니즘, 국가기관의 전횡과의 투쟁, LGBT 권리 수호, 반푸틴주의, 권력기관의 급진적인 탈중앙집권화, 힘킨 숲 보호, 러시아연방 수도의 동시베리아 이전.⁸⁾

그러던 중 2012년 2월 21일, 모스크바 구세주 성당에서⁹⁾ 1분여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 공연을 시도했고, 이보다 며칠 앞서 엘로호보의 에피파니 성당에서 찍은 유사한 영상을 더해 ‘Punk Prayer’라는 2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며¹⁰⁾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결국 2012년 3월, 구세주성당에서 공연을 (시도)했던 나테쥬다 콜로콘니코바(1989년생), 마리아 알료히나(Мария Алёхина, 1988년생), 에카테리나 사무체비치(Екатерина Самуцевич, 1982년생)는 ‘종교혐오에 기반 한 난동죄’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8월에 2년 형을 선고받는다.¹¹⁾ 이들 중 콜로콘니코바와 알료히나는 페름과 몰도바의 노동수용소에서 형기를 2개월 앞둔 시점까지 복

대 초 페미니스트 하드코어 펑크 운동 명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러시아의 수많은 토크쇼의 진행자들, 그리고 푸틴도 서구의 언론과의 대담에서 이 명칭이 너무도 저속하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충격적인 제목으로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날리는 것이 전위그룹의 전형적인 전략인 만큼 이 명칭 자체가 놀라울 것은 없으나 러시아의 페미니스트활동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영어 제목으로 인해 ‘페미니즘=서구의 것’이라는 적대적인 정서가 더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8) http://grani.ru/users/pussy_riot/

9)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원정으로 발발한 조국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구세주 성당은 스탈린에 의해 파괴되다가 1997년에 재건된 유서 깊은 장소이다. 사실 이들보다 먼저 2011년 12월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페멘의 활동가들이 구세주 성당에서 푸틴의 재선 전략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바 있었으나, 이 사건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10) Punk Prayer ‘Mother of God, Chase Putin Away’ <https://www.youtube.com/watch?v=GCasuaAczKY>

11)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무체비치는 10월에 단독으로 새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이 이 공연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증명하여 보호관찰로 석방된다.

역하다가 2013년 12월 소치 올림픽 특사로 석방되었다. 하루 17시간의 노동을 하는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콜로 콘니코바는 수용소측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수감자들과의 갈등으로 끝없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분명 불구속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체포된 이 세 명의 젊은 여성들에 대한 재판 과정은 불공정했고, 선고된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혹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 내내 구금되어 있었고, 많은 서구언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으며,¹²⁾ 그 사이 정부의 통제아래 있는 러시아 미디어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들을 비난하는 방송들을 내보냈다. 만삭의 몸으로 동물학박물관의 그룹섹스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콜로콘니코바의 영상이나 수퍼마켓에서 냉동 닭을 성기에 넣는 퍼포먼스 영상 등 이들의 과거 활동을 담은 영상들이 여과 없이 방영되었고, 범국민적인 혐오의 정서도 커져 갔다. 이들이 올림픽 특사로 석방되었을 때, 레바다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1%의 러시아인들은 사면 자체에 반대했고, 40%의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표하면서도 사면은 인정했다.¹³⁾

반면 출소와 동시에 이들은 서구에서 국제적인 미디어 스타가 되었다. 콜로 콘니코바와 알료히나는 2014년 국제사면위원회를 위한 마돈나의 뉴욕자선공연무대에 마돈나와 함께 올랐고, 2014년 4월에는 힐러리 클링턴(Hillary Clinton)이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푸시 라이어트의 강하고 용감한 여인들을 만나 기쁘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침묵하기를 거부했다.”¹⁴⁾ 2014년 런던에서 출간된 마샤 게센(Masha Gessen)의 책 『말이 시멘트를 부술 것이다. 푸시라이어트의 수난(Words Will Break Cements. The Passion of Pussy Riot)』은 전형적인 서구 언론의 ‘푸시 라이어트’ 이해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에 따르면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를 받는 러시아의 미디어가 ‘푸시 라이어트’를 공명심과 서구의 재정지원에 굶주린

12) Masha Gessen, *Words Will Break Cements. The Passion of Pussy Riot*. London:Granta Books, 2014.

13) Peter Rutland, “The Pussy Riot affair: gender and national identity in Putin’s Russia, *National Papers* 42:4, 2014, p.578.

14) <https://twitter.com/hillaryclinton/status/452130729691201536>

탐욕스러운 이들로 매도했고, ‘푸시 라이어트’의 행위는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정치적 탄압을 일삼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이들을 부당하게 억압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많은 부분 사실을 담고 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이와 연동된 ‘정치적’ 측면에서도 많은 약점과 한계, 모순을 내보이는 이 그룹에 대한 서구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열광에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와 서구의 신냉전은 2008년 그루지야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2011-12년 러시아의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 개입으로 심화되었다. 그러던 중 2012년 미국이 마그니츠키법안을¹⁵⁾ 의결했고,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디마 야코블레프 법을¹⁶⁾ 통과시킨 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거기에 기름을 붓듯 러시아의회는 2013년 6월 만장일치로 동성애선전금지법을 통과시켰고, 2013년 11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3월 크림합병을 이루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미디어의 불신은 최고점을 찍었으며, 서방의 여러 제재가 무색할 만큼 일관된 푸틴의 행보는 이 모든 상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신냉전의 지형을 배경으로 ‘푸시 라이어트’는 서구가 듣기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러시아의 투사로 미화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열광은 오히려 러시아인들에게는 ‘푸시 라이어트’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과 러시아에 편만한 ‘反서구주의’적 입장을 강화시키고,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궁극적으로는 푸틴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다.

분명 ‘푸시 라이어트’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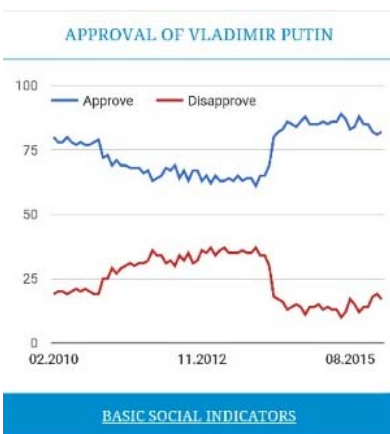
15) ‘마그니츠키 법안’은 러시아 관리들의 대규모 횡령사건을 고발한 뒤 기소돼 2009년 현지 구치소에서 사망한 러시아인 변호사 셰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미 상원 외교위는 2012년 6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6) 2013년 1월 1일, 러시아는 미국인의 러시아 아동입양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對美) 인권법을 발효했다.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숨진 두 살배기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따 ‘디마 야코블레프 법’이라 불리는 대미 인권법은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것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몇 달 간 진행되며 전국에 중계되기 까지 하였던 재판과정에서 ‘푸시 라이어트’의 멤버들은 ‘Punk Prayer’가 3월 4일로 예정되었던 푸틴의 3선 대통령 선거운동에 러시아정교회가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 데 대한 항의를 표명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 절대 종교혐오에 기반 한 난동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교회신자로서의 ‘기도’였다고 여러 차례 항변했다. 정교회의 정치적 입장에 관한 이들의

비난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당시 러시아정교회는 푸틴정부의 가장 든든한 이데올로기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다. 키릴 대주교는 푸틴 통치 기간을 ‘신으로부터의 기적’이라 부르고, 러시아 아동인권엔 엄청난 타격이 된 디마 야코블레프법이 통과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정권과 유착된 보수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었다.¹⁷⁾

사실 ‘푸시 라이어트’가 ‘Punk Prayer’를 공연했던 시기는 3선 당선을 시도하던 푸틴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이 가장 컸던 시기였다. 레바다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푸틴지지도 변화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¹⁸⁾ 이때 푸틴의 지지율은 그의 정치활동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전국적인 규모의 반푸틴운동이 번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어찌 보면 이렇듯 우호적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푸시 라이어트’의 공연은 러시아에서 페미니즘 운동으로도 또 이에 기반 한 저항적인 정치행위로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푸시 라이어트’는 맹목적인 푸틴의 추종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가장 열렬하게 안티푸틴 운동을 펴고 있던 진영으로부터도 일체의 지지를 받지 못



푸틴 지지도 변화표

17) 러시아정교와 푸틴정부의 유착상화에 대하여는 Nadezda Kizenko, “Feminized Patriarchy? Orthodoxy and Gender in Post-Soviet Russia,”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8:3, 2013, pp. 595-621.

18) <http://www.levada.ru/eng/>

했다. 이들은 ‘푸시 라이어트’에 대한 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비난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공연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¹⁹⁾

서구와 러시아가 바라보는 ‘푸시 라이어트’ 사건의 이 극단적인 불균형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러시아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학자인 마리나 유수포바는 여성의 정치적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서와 서구적인 의미의 페미니즘이 전혀 정착하지 못한(혹은 정착할 수 없는) 러시아의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²⁰⁾ 그녀는 “왜 러시아에서 다양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20년이 넘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는 페미니즘 운동이 부재한 것일까? 왜 엄청난 수의 러시아인들은 페미니즘이 가정을 파괴하는 서구의 트렌드라고 믿는 것일까? 다른 말로 하자면,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전복적인 이데올로기의 하나가 왜 러시아에서는 그 혁명적 잠재력을 상실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페미니즘이 러시아 토양에 정착하기 힘든 두 가지 주된 요인으로 ‘번역’의 문제와 지역적 특성에 온전히 녹아들기보다는 일종의 전지구적인 자매연대를 꿈꾸는 제 1세계 중심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든다.

19) 당시 푸틴의 정부의 부정부패를 맹공하며 푸틴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처럼 알렉세이 나발니(“구세주성당에서의 공연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바보들.” - Деловой Петербург 12)나 가장 유명한 안티 푸틴 계열의 정치인이었고 결국은 푸틴에게 암살당한 보리스 넵초프(“그 병아리들은 사실 엉덩이라도 맞아야했다” - Новая газета 2012), 대표적인 여류 안티푸틴 언론인 크세니야 소프착(“15일 구류, 교회청소 사회봉사가 이들에게 걸맞은 벌이 아닐지” - Госдеп 2, 2012)” 등 수많은 반정부인사들 중 이들의 행위를 동역할만한 가치있는 행위로 평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20) Marina Yusupova, “Pussy Riot: a feminist band lost in history and translation,” pp. 607-8. 국내에서는 강윤희가 러시아의 포스트 소비에트 페미니즘 수용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중 “현대 러시아인의 페미니즘 인식 연구: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17권 2호, 295-323을 참조하시오.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같은 저자의 논문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페미니즘 수용과정 고찰”의 결론 역시 서구의 큰 재정지원 하에 이루어진 페미니즘 운동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 옮긴이 주)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진정한 대중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윤희,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페미니즘 수용과정고찰』, 『슬라브학보』 22권 4호, 152쪽).

한편 페테르부르크 젠더연구소의 설립자인 엘레나 가포바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내놓는다. 우선 그녀는 푸시라이어트가 택한 공연의 공간이 정교회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일한 공연이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이 러시아내에서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지도, 또 푸틴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 지적하며, 그녀는 포스트소비에트 정교회 ‘제단’ 위에서 벌어진 ‘푸시 라이어트’의 퍼포먼스는 ‘신자 vs. 불신자’의 대립에서 ‘신자’들의 분노를 산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내내 억압받다가 되살아난 정교회로 대변되는 ‘러시아성’, ‘러시아적 정신’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고 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정교는 (...) 러시아성(русскость)의 표현수단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에 관한 형식적인 문제에 집중된 대립은 현대적인 의미의 ‘신앙’의 영역에서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러시아성’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 바로 이 때문에 정권은 이를 ‘러시아 정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를 위한 동원적 구실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²¹⁾

가포바는 BBC 방송국 기자가 ‘푸시 라이어트’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이 그룹을 지지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을 “영어로 유창하게 답하는” “스타일리쉬한 젊은이들”이라고 묘사한 부분을 인용하며 이들의 운동이 아직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 힘든 새로운 계층의 문제와도 연관되어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푸시 라이어트’의 노래 텍스트들을 연도순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발레리 스펠링(Valerie Sperling)의 연구는 뮤지션으로서의 이들의 작품들에 드러나는 상당한 내적 모순을 지적한다. 일차적으로는 서구의 페미니즘이론가들을 자신들의 활동에 영감을 준 스승으로 거명하지만,²²⁾ 실제 그들의 노래 텍스트나 ‘Punk Prayer’ 이전의 공연영상, 전시화

21) Елена Гапова, “Дело «PussyRiot»: феминистский протест в контексте классовой борьбы.”

22) 2012년 2월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준 페미니스트로 시몬 드 베이유(Simone de Beauvoir), 안드레아 드워킨(Andrea Dworkin), 에멀린 판크허

동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남녀의 성규범, 동성애혐오, 여성혐오에 근간을 둔 공격적인 시어나 시적 메타포들이 주는 자극성에 기대어있다.²³⁾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직 페미니즘적 인식이 정착하지 못한 러시아 특유의 문화적/역사적 토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온갖 전위예술이론과 페미니즘이론은 장착했으나 러시아내에서 자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내는데 실패하고 실제로도 많은 내적 모순과 미숙함을 드러내는 ‘푸시 라이어트’라는 그룹의 한계 때문이었는지, 신냉전시대의 지정학적 상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모든 요인들의 복잡한 화학반응 때문이었는지 간에 현재까지 러시아 내에서 ‘푸시 라이어트’ 사건은 서방세계의 엄청난 지지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푸틴정부의 남성주의적 젠더담론과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러시아에서는 “‘푸시 라이어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옳았다. (...) 우리의 도덕적 기초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남겠는가?”²⁴⁾ 푸틴의 발언이 반대측의 발언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크레믈린은 자신들의 신전통주의 가치라는 아젠다를 확장시키기 위해 ‘푸시 라이어트’의 Punk Prayer를 냉소적으로 이용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이 러시아국가의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진지하게 믿기는 어렵지 않은가. (...) 적어도 단시간을 축으로 보았을 때 푸틴이 그 반대편보다는 많은 이득을 본 듯하다.²⁵⁾

그런 의미에서 ‘푸시 라이어트’ 사건은 분명 현대러시아 젠더담론에 던져

스트(Emmeline Pankhurst), 술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등을 든다(Henry Langston, “Meeting Pussy Riot,” *Vice* March 12, 2012(<http://www.vice.com/read/A-Russian-Pussy-Riot>)).

23) Valerie Sperling, “Russian Feminist Perspectives on Pussy Riot,” *Nationalities Papers* 42:4, 2014, pp. 591-603.

24) Miriam Elder, “Putin Says Pussy Riot ‘Got What They Asked For,’” *The Guardian*, October 5, 2012.

25) Peter Rutland, “The Pussy Riot Affair: Gender and National Identity in Putin’s Russia,” p. 581.

진 거대한 질문이다. 이 사건이 오히려 푸틴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몇몇 정황들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삼키는 푸틴 정부의 젠더/민족주의 전략의 자장이 가지는 놀라운 힘과 러시아 자국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열광적인 지지 앞에서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게 된다. 이에 마지막 장에서는 푸틴정부가 표방하는 현대러시아의 젠더/민족주의 담론의 전략을 살피고, 이러한 독특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기억,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들을 일별해 보고자 한다.

III. 젠더-민족주의-소비에트 노스탤지어

2009년 12월, 러시아 7개 지역 거주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진짜 남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푸틴을 지목했다. 1위에 오른 푸틴의 뒤를 이은 것이 응답자의 7%가 선택한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의 초대형 슈퍼스타 블라디미르 브이소츠키(Vladimir Vysotsky)와 콘스탄틴 하벤스키(Konstantin Khabensky)인 것을 보면 이 수치가 얼마



2016년판 푸틴달력 中

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²⁶⁾ 이보다 2년 전에 있었던 선거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러시아 정치계의 ‘진짜 남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4.8%가 푸틴이라 답했다. ‘진짜 남자(настоящий мужчина)’가 누구인지를 묻는 설문자체도 놀랍게 시사적이지만, 설문 결과 또한 놀랍다.

26) www.regnum.ru/news/1231490.html

푸틴정부가 관여하는 러시아의 다양한 매체들은 유도와 각종 운동으로 단련된 몸으로 말을 타고, 오토바이를 몰고, 사냥을 즐기는 만능스포츠맨, 당장이라도 전투기를 몰고 출격할 준비가 된 군인이자 냉철한 스나이퍼, 말이 없지만 강하고, 지성과 부드러움까지 겸비한 정치인 등 군사적 이미지와 성적 이미지가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남성’ 이미지들을 끝없이 생산해낸다.

그런 푸틴에게 러시아여성들이 보내는 지지 역시 열광적이다(“그는 믿을 만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말없이 말한 바를 행동으로 지켜낸다”²⁷⁾). 푸틴에 관한 에로틱 판타지를 담은 노래들이 유통되고,²⁸⁾ 모스크바대학교 신문방송학부 여대생들이 푸틴의 58세 생일을 축하하며 만든 ‘Birthday Calendar for Putin’(2010)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심지어 국내의 인터넷서점 알라딘(www.aladdin.co.kr)에서 푸틴의 이름을 검색하면 『남자의 남자, 푸틴』(땡즈커 저, 베이직북스, 2007), 『결혼을 하려면 푸틴 같은 남자』(김중현 저, 일송북, 2008)라는 제목들이 보이니, 일련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강한 남성성으로 무장한 푸틴의 이미지 만들기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듯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젠더담론과 민족주의담론, 더 넓게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담론은 종종 그 교차점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정당화한다. ‘젠더’를 “권력관계를 의미화 하는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기술한 조안 스코트(Joan Scott)나,²⁹⁾ “민족주의는 그 시작부터 젠더화된 담론으로 구성되어있고, 젠더권력이론이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는 앤 맥클링톡(Anne McClintock)의 주장은 이미 현실정치를 통하여 수없이 증명되어왔다.³⁰⁾ 세계를 바람 잘 날 없게 만드는 거

27) Oleg Riabov and Tatiana Riabova, “The Remasculinization of Russia? Gender, Nationalism, and the Legitimation of Power Under Vladimir Putin,” *Problems of Post Communism* March/April, 2014, p.25.

28) Нагали, Такого как Путин(I Want a Man Like Putin), <https://www.youtube.com/watch?v=aO0Yd2qRbK8>

29) Joan W. Scott,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5 (1986), p.1067.

30) 분명 젠더, 젠더담론은 세계를 묘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관계를 규정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이 된다. 특히 민족주의가 “사회분류의 광범위한 시스템 안에서 민족을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터로 사용하는 분류화 담



푸틴의 생일달력 1월 - '모두 당신 같은 남성을 얻을 수 있다면'

친 행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4선 당선을 점치는 푸틴의 전략은 젠더담론과 민족주의의 만남을 보여주는 가장 교과서적인 예의 하나일 것이다. 그의 거침없는 대내외정책은 '러시아성'과 '남성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설명되어지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자국민의 큰 지지를 얻는다. 올렉 라보프(Oleg Riabov)와 타티야나 라보바(Tatiana Riabova)는 이러한 푸틴의 정책과 권력정당화 방식 전반을 "러시아의 재남성화(remasculinization)"라 부르고,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징후적인 단어로 2000년대 러시아를 풍미했던 '무

지크(мужик)'을 든다.³¹⁾ 원래 '무지크'라는 단어는 계급적 함의를 가진 단어로, 귀족이 아니라 러시아의 평민 남성, 남자농부를 지칭하는 단어였으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부터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진짜 남자', '진짜 러시아성을 드러내는 남자 중의 남자'라는 매우 '이상적인'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된다. 올가 샤부로바(Ольга Шабурова)는 이 개념이 종종 부정 정의(negative definition)를 내포하며 '전통주의', '보수주의', '반서구주의'의 가치들과 연동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무지크가 되기 위해서 너는 네가 여자가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 동성애자가 아님을 증명해야한다."³²⁾ 이렇듯

론”(Katherine Verdery, “Whither ‘Nation’ and ‘Nationalism’?,” *Daedalus* 122:3, 1993, pp.37-46)이라 할 때, 이러한 분류는 많은 경우 젠더 이미지, 상징, 메타포를 포함한 다양한 언표(젠더와 친족관계 용어들, 예를 들면, fatherland, mother tongue, brothers and sisters)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31) Oleg Riabov and Tatiana Riabova, “The Remasculinization of Russia? Gender, Nationalism, and the Legitimation of Power Under Vladimir Putin,” *Problems of Post Communism* March/April, p.25.

32) Olga Shaburova, “Muzhik ne suetitsia, ili pivo s kharakterom,” *O*

‘무지크’는 2000년대 러시아에서 헤게모니를 쥔 개념, 로버트 코넬(Robert Connell)의 용어로 하자면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의 상징이 되었다.³³⁾

분명 젠더담론과 민족주의의 조우가 이토록 강렬한 효과를 내기 시작한 데에는 ‘강한’ 러시아 대한 대중적 갈망을 키워온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소비에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무성’의 제국이라 불렸다. 여성과 남성은 ‘동지’라는 이름의 사회주의건설역군으로 연합하였고, ‘사회주의’라는 숭고하고 거대한 이념 앞에서 ‘다음 세대의 재생산’과 연관되지 않은 개인의 성, 성적 욕망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었다.³⁴⁾ 더욱이 1917년 혁명 이후 여성운동은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볼셰비키정부는 소련에서 ‘여성 문제’(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 육아의 사회보장 문제 등)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서구 부르주아 문화의 소산이라고 선포했다. 사라 애쉬윈(Sarah Ashwin)의 지적처럼 분명 볼셰비키정부는 구사회제도를 뿌리부터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여성’을 이용했다. “젠더는 언제나 소비에트 시스템의 주된 조직적 원칙”이었고, 혁명직후 공산당은 새로운 제도를 그 근본부터 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젠더관계의 패턴을 변형시키고자 했다.”³⁵⁾ 마셀(G. Massel) 역시 정치적 변화가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를 위시한 구소련 지역에서 “여성을 동원하여 기존의 가족과 친족관계 체계를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파급력있는 “문화혁명(강조 - 원저자)”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³⁶⁾

Muzhe(N)stvennosti, p.534.

33) R.W. Connell, *Masculin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76.

34) 이문영, 『현대 러시아 사회와 대중문화』, 한울, 2008, 153쪽.

35) Sarah Ashwin, “Introduction,” *Gender, State and Society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Routledge, 2000, p.1.

36) G. Massel, *The Surrogate Proletariat: Moslem Women and Revolutionary Strategies in Soviet Centural Asi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86.

그리하여 1917년 혁명과 더불어 가부장적인 기존의 가족관계형태는 급속도로 해체되었고,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 직업권이 보장되었으며, 그와 연관된 국가의 탁아/육아 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갖추어져갔다. 여성에게는 어머니의 역할과 산업역군의 역할이 함께 부여되었고, “‘남성-국가-여성’이라는 삼각형³⁷⁾ 속에서 국가는 가정생활 안으로 깊숙이 개입하며 사회를 조직해나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관념은 소비에트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에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일을 하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이 모든 가사를 담당하고, 유약하고 ‘여성적인’ 남성들은 술을 마시고,” “가정에서 벗어날 자율권을 누리는데³⁸⁾ 기이한 삶의 양태가 지속되었다. 소비에트의 반체제 여성문학작품 속에는 아이를 한두 달씩 탁아소에 맡겨 두고 노동과 모성과 사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비애와 주어진 제도 속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소비에트 남성들의 우울이 짙게 배어 있다.³⁹⁾ 이러한 삶의 괴로 속에서, 분명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독립을 얻은 소비에트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역할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⁴⁰⁾

그리하여 소비에트의 붕괴를 예고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소비에트 시스템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개혁의 중요한 지표가 된 것은 ‘정상적인 성규범’으로 돌아가는 것, ‘무성의 제국’, ‘무성의 호모소비에티쿠스(Sexless Homo-Sovieticus)’를 벗어나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성역할로 회귀하는 것이었다.⁴¹⁾ 캐서린 버더리(Katherine Verdery)의 지적처럼,

37) Sarah Ashwin, “Introduction,” p.2.

38) 위의 책, p.18.

39) 이에 관하여는 류드밀라 페트루헵스카야, 『이웃의 아이를 죽이고 싶었던 여자가 살았네』(시공사, 2009)를 참조하시오.

40) Marina Kiblitkaia, “Russia’s Female Breadwinners: The Changing Subjective Experience,” *Gender, State, Society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p. 64-66.

41) 이에 관하여 강윤희는 “소련여성들은 그들의 사회적 노동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전통적인 여성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르바초프 시기에 나타난 보수적, 복고적 여성관의 부활은 이처럼 양면적이었던 소련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평한다(강윤희, 「소비에트와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젠더 재구성: 여성성과 남성성의 변모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1권 4호, 2006, 205쪽).

1980-90년대 사회주의국가의 개혁지지자들에게 변화는 “정상화”, 즉 “젠더 본질과 모성의 자연스러운 역할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⁴²⁾ 따라서 이 시기 젠더 담론은 “근대문화에 내재적인 남성성/여성성의 해석에 상응하도록 러시아를 남성화하고자 하는”⁴³⁾ 에너지를 담게 된다.

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직후 러시아의 현실은 이러한 새 시대의 비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히려 이 시기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집단적인 탈남성화’를 겪어야 했다. 전 세계 앞에서 냉전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고, 실질적으로 체첸전에서 패했으며, 국제적 성매매의 나라, 인터걸의 나라로 떠오르게 된다. 1990년에 “소련이 옷을 벗는다”는 선정적인 카피로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던 영화 ‘인터걸’(포트르 토도로프스키, 1989)은 관객을 유혹하던 선정적인 문구와 달리, 갑자기 벌거벗겨진 채로 세계 앞에, 자본주의 시장 앞에 서게 된 러시아의 당혹과 슬픔을 그린 영화이다. 당시 외자를 유치해야했던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종종 ‘매춘행위’로 묘사되었고, 고급 호텔들을 가득 채운 ‘인터걸’들에 대한 세계적 소문은 민족의 여성을 지키지 못한 굴욕감으로 각인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남성지를 연구한 엘리엇 보렌스타인(Elliot Borenstein)은 이 시기 러시아 남성들이 남자의 존엄성과 섹슈얼리티를 민족적 자존심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성 트라우마”는 서구의 경우와 달리 여권신장의 문제와 연관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약화’, ‘탈남성화’의 문제로 사유되었다.⁴⁴⁾

푸틴은 페레스트로이카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가 가져다 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경제파탄으로 산산조각 나고, 엘친의 지지율이 급기야 4%까지 곤두박질 친 시기에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 시기 “세계글로벌시스템으로의

42) Katherine Verdery, “From Parent-state to Family Patriarchs: Gender and Nation in Contemporary Eastern Europe,” *East European Politics & Societies* 8, 1994, p.253.

43) Elena Zdravomyslova and Anna Temkina, “Krizis maskulinnosti v pozdnesovetskom diskurse,” *O Muzhe(N)stvennosti*, Moscow: Novoe Literaturnoe Obozrenie, 2002, p.450.

44) Eliot Borenstein, “Maskulinnost I natsionalism v sovremennykh russkikh zhurnalakh,” *Eros I pornografiia in Russian Culture*, Moscow: Ladimir, 1999.

편입이 국가위상의 바닥모를 추락으로, 서구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도입이 실패로 끝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개혁의 기대는 환멸로 변하였다. 1993년 10월, 불과 몇 년 전 반동적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엘친이 그 상징인 의회에 내린 발포명령은 변화에 대한 대중의 꺼져가는 기대를 향한 일발이기도 했던 것이다. 대중에게 중요한 가치범주가 변화와 개혁에서 안정과 질서로 이동하고 민주주의의 자율성보다 ‘강한 손’의 보호”로⁴⁵⁾ 이동했던 시기에 푸틴은 그 강한 손이 되어줄 자로 등장했다. 집단적인 남성적 존엄성의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당시 반엘친, 반자유주의 진영에 속했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계열 정당들의 대표적인 요구였고,⁴⁶⁾ 이를 배경으로 푸틴은 새 정부의 정체성을 민족/남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에서 찾았고, 71%의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며 2000년대를 풍미했던 그의 인기도 2008년 이후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약화되었고, 앞서 언급했던 대로 3선을 시도했던 2011-2년 푸틴의 지지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알렉세이 나발니(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를 위시한 반대파들은 정부의 부정부패, 독재적 정책들을 들어 맹공을 펼쳤고, 푸틴을 ‘사기꾼과 도둑들의 도당’의 당수라 부르며 압박했다. 크레믈린은 이러한 도덕적 위협에 도덕적으로 맞설 수 있는 논거가 필요했고, 그 동안도 강조해오던 ‘새로운 러시아 신화창조’의 깃발을 더욱 세차게 흔들고 있다.⁴⁷⁾ 푸틴은 2013년 9월 발다이클럽에서 자신의 민족주의적 담론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45) 이문영, 「지구지역적 현상으로서 노스텔지어 - 포스트소비에트의 과거활용」, 『해체와 노스텔지어』, 한국학술정보, 109-110쪽.

46) Riabov and Riabova, “U nas seksa net: Gender, Identity and Anticomunist Discourse in Russia,” *Issues and Problems within Post-Soviet Development*, Iowa-City: Inovesity of Iowa, 2002, pp.31-32; Tatiana Suspitsina, “The Rape of Holy Mother Russia and the Hatred of Femininity: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the Use of Feminine Imagery in the Russian Nationalist Press,” *Aththropology of East European View* 17:2, 1999, pp.114-123.

47) 이에 관하여는 Gulnaz Sharafutdinova, The Pussy Riot Affair and Putin's Démarche from Sovereign Democracy to Sovereign Morality, *Nationalities Papers* 42:4, 07/2014, pp.615-621을 참조하시오.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급변하는 세계, 모든 것이 개방되고 투명해지며 상호의존적이 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분명 러시아의 진보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자기정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러시아의 민족적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것은 세계화라는 객관적 압력만이 아닙니다. 20세기의 비극의 결과들도 우리에게 압력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민족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코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전통과 역사의 단일함을 상실했으며, 사회의 비윤리성, 책임감과 신뢰의 부재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문제들의 첨예한 뿌리가 있습니다. (...) 러시아의 주권, 독립성, 총체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누구도 넘어서 수 없는 “붉은 선”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체성의 문제, 민족의 미래의 문제를 애국심 없는 참여자들과 논할 수는 없습니다. (...) 비판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자기존중 없이, 조국에 대한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비판은 모욕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하며, 우리에게 자랑스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러시아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야합니다. (...) 외교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들도 러시아 정체성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서구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적 가치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뿌리와 실제적으로 유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윤리적인 계기들과 전통적 정체성, 즉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심지어 성적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 1991년 이후의 시기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극적인 격동의 시간을 살아냈고 극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여러 차례 그랬었던 것처럼 파괴와 시련을 지나며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역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단단히 하고, 우리의 뿌리를 굳건히 하며 동과 서의 가장 훌륭한 사상과 경험들에 민감하게 열린 채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⁴⁸⁾

‘민족’과 ‘젠더’의 문제가 만나는 지점 위에 세워진 푸틴의 전략이 점점 더 ‘러시아’적인 것, 그것도 ‘여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서구/외세’와 대립되는 대타자로서의 ‘러시아’에 집중하는 것과 맞물려 발견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문화현상이 바로 ‘소비에트 노스텔지어’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노스

48) 발다이클럽 푸틴연설 속기록(<http://rg.ru/2013/09/19/stenogramma-site.html>)

텔지어’는 러시아에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전지구적인 현상이며, 특히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 널리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⁴⁹⁾ 우리나라의 “응답하라~”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복고의 움직임도 넓게 보았을 때 ‘노스텔지어’ 현상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대략 1990년대의 중반부터 노스텔지어가 대중적 정서를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환멸로 바뀌던 그 시기에 ‘소비에트 노스텔지어’의 이상이 된 시기는 극심한 정체의 시기였던 브레즈네프 시대였다. 이 때 대중이 필요로 한 것이 그 시대의 구체적 실상이라기보다는 “상상된 총체로서 그 시대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인⁵⁰⁾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노스텔지어’가 근본적으로 영원히 상실한 시간/공간의 불가역성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감정적 태도인 것을 기억할 때 러시아인들이 원하는 것이 ‘사회주의’국가로의 실질적인 회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⁵¹⁾

이러한 러시아의 ‘소비에트 노스텔지어’가 러시아의 젠더담론과 연관하여 유의미한 지점을 지니는 것은, 처음에는 “당시 사회상황에 의해 대중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된 현상”이었던 ‘소비에트 노스텔지어’가 이제는 “대중의 외부로부터 일차적인 동력을 얻고”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시기부터인가 러시아 정부는 ‘소비에트 노스텔지어’라는 글로벌한 문화현상을 앞서 살핀 발다이클럽 발표문에서 천명한 ‘새로운 러시아 정체성 만들기 신화’와 점점 더 조직적으로 연동시키고 있다. 이문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정체성의 구조와 내용이 대중의 자발적 선택보다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인되고, 정체불분명한 신

49) 옛 유고연방에 속했던 발칸 반도에 부는 ‘유고 노스텔지어나’ 티토 노스텔지어에 관하여는 D. Bilefsky, “Oh! Yugoslavia! How They Long For Your Firm Embrace,” *The New York Times*, January 30, 2008; M. Todorova and Z. Gill eds. *Post-Communist Nostalgia*(Oxford: Bergahn Books, 2010)을 참조하시오.

50) Б. Дубин “Лицо эпохи: Брежневский период в столкновении различных оценок,”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3:65, 2003, p.26.

51) 러시아의 일상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노스텔지어’ 현상에 관하여는 이문영, 「지구지역적 현상으로서의 노스텔지어 -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과거 활용」, 『해체와 노스텔지어. 포스트소비에트 문화와 소비에트 유산』, 한국학술정보, 99-135 쪽을 참조하시오.

화의 형식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이념이 개인 속에 내면화 되어 대중의 자발적인 선택 자체를 변형⁵²⁾ 시키고 있으며, 앞서 살핀 바 푸틴 정부의 젠더/민족주의담론을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형태로 각인시키고,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푸틴의 독재적 철권통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놀라운 수용성의 이면에는 분명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모델로 만들어졌던 소비에트의시기를 향수의 대상으로 만드는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적 정서가 허용하는 감정적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에트 노스탤지어’는 이 글의 3장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 모든 것을 삼키는 푸틴의 젠더/민족주의 담론의 강력한 자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사회적, 정치적 동인의 하나일 것이다.

IV. 맺으며

논문을 쓰고 있던 중에 러시아에서 카시야노프 성추문 사건이 일어났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푸틴의 강력한 라이벌인 미하일 카시야노프(Михаил Касьянов) 전 총리와 시민운동가 나탈리아 펠레빈(Наталья Пелевин)의 성관계 동영상 공개했다. 이로서 또 한 사람의 푸틴의 숙적의 정치적 생명이 막을 내렸다. 야권 지도자의 성추문, 한가정의 가장의 혼외정사가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화면에 비추어지는 것과는 다른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 비난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영방송이 야당 지도자와 시민운동가의 성관계 동영상을 30분이 넘게 방송한 상황의 비민주성에 대하여는 카시야노프 자신도 침묵하고 있다.

또 4월 21일 SBS에서는 동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 문을 연 푸틴 카페를 소개했다. 벽면에는 온통 푸틴 대통령의 사진이 가득하고, 소련국가보안위원회요원으로 활동했던 젊은 푸틴부터 유도마니아, 또 국제 정치가로서의 모습 등 다양한 사진들이 붙어 있다. 또 푸틴과 대립 관계에 있는 서방의 지도자들, 오바마 대통령, 메르켈 총리의 사진에는 장난스러운 낙서가 돼

52) 위의 책 127쪽.

있으며 화장실 바닥에 있는 깔개에는 성조기가, 화장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이 찍혀 있다.⁵³⁾

푸틴에 대한 열광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 경제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의 위기론 또한 새어나온다. 자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리아 파병을 단행하고, 서구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푸틴 정권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푸틴이 신설한 ‘국가 근위대’는 사전경고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총선과 경제 위기로 야기될 반정부 시위나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사전 장치라는 추측도 나온다.⁵⁴⁾

‘푸시 라이어트’ 사건을 통해 러시아 젠더/민족주의 담론의 정책적 확장과 그러한 담론의 여전히 유효성(그러나 결국은 유효기간을 지날 유효성)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라는 문화적 현상, 소비에트를 살아나온 러시아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경험을 서구의 경우와 비교하며 재단하기보다는 그 뿌리로부터 보다 내밀한 방식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마침 올해 초, 2015년 노벨문학상수상자인 벨라루시의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책 『세컨드 핸드 타임 -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최후』가 번역되었다. 주로 수기 형식의 글을 쓴 이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도 러시아를 비난하려는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냉소에도 불구하고 ‘어느 가담자의 수기’라는 글로 시작되는 이 기록집은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 글의 서론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공산주의에는 ‘오래된 사람’, 즉 태초부터 살아온 아담을 개조시키겠다는 터무니없는 포부가 있었다. 그리고 그 포부는 실현된 듯하다. 어쩌면 이것이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달성한 성과였으리라. 지난 70여년의 세월 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 실험소’는 독특한 인간유형인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창조했다. 혹자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가리켜 비극적인 인간상이라고 부

53) <http://news.zum.com/articles/30142579>

54) 윤영순, “몰래카메라와 친위대의 정치,” 『매일신문』 2016.4.1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8597&yy=2016)

르고,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줄여 ‘소보크(совок)’라고 낮잡아 부르기도 한다. 나는 호모 소비에티쿠스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게 익숙하다. (...) 내가 바로 그들 중 하나다. (...)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만큼 눈에 띈다! 사회주의 출신인 우리들이 서로 닮았기 때문이고, 외부인들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린 우리만의 언어가 있고, 우리만의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우리만의 영웅과 순교자들이 있다. (...) 내가 찾는 사람들은 사상에 유착되어 있어서 그 사상을 뽑아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자기 안에 심어놓은 사람들, 즉 국가가 곧 우주라는 생각으로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비롯해 모든 것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었다. (...) 학창시절이 떠오른다. (...) 우리가 없을 때 혁명이 일어났고 내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해했던 기억들. (...) 과연 우리는 이런 자유를 기다려왔던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다. (...) 그런데 막상 시작된 것은 체호프의 소설 같은 인생, 아무 역사가 없는 인생이었다.⁵⁵⁾

❖ 참고 문헌

- 강윤희,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젠더 재구성: 여성성과 남성성의 변모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1권 4호, 2006.
- _____,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페미니즘 수용과정고찰」, 『슬라브학보』 22권 4호, 2007.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세컨드핸드 타임 - 호모소비에티쿠스의 최후』, 이야기가있는집, 2016.
- 윤영순, 「몰래카메라와 친위대의 정치」, 『매일신문』 2016.4.1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8597&yy=2016)
- 이문영, 『현대 러시아 사회와 대중문화』, 한울, 2008.
- _____, 「지구지역적 현상으로서의 노스텔지어 -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과거 활용」,

55)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세컨드핸드 타임 - 호모소비에티쿠스의 최후』, 이야기가있는집, 2016, 8-14쪽.

『해체와 노스텔지어: 포스트소비에트 문화와 소비에트 유산』, 한국학술정보, 2012.

Bilefsky, Dan, “Oh! Yugoslavia! How They Long For Your Firm Embrace,” *The New York Times*, January 30, 2008.

Borenstein, Eliot, “Maskulinnost I natsionalism v sovremennykh russkikh zhurnalakh,” *Eros I pornografiia in Russian Culture*, Moscow: Ladomir, 1999.

Elder, Miriam, “Putin Says Pussy Riot ‘Got What They Asked For,’” *The Guardian*, October 5, 2012.

Gessen, Masha, *Words Will Break Cements. The Passion of Pussy Riot*, London:Granta Books, 2014.

Nadiezda Kizenko, “Feminized Patriarchy? Orthodoxy and Gender in Post-Soviet Russia,”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38:3, 2013.

Riabov, Oleg and Riabova, Tatiana, “The Remasculinization of Russia? Gender, Nationalism, and the Legitimation of Power Under Vladimir Putin,” *Problems of Post-Communism* 61:2, 2014.

_____, “U nas seksa net: Gender, Identity and Anticommunist Discourse in Russia,” *Issues and Problems within Post-Soviet Development*, Iowa-City: University of Iowa, 2002.

Rutland, Peter, “The Pussy Riot Affair: Gender and National Identity in Putin’s Russia,” *Nationalities Papers* 42:4, 2014.

Scott, Joan W.,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5, 1986.

Sharafutdinova, Gulnaz, “The Pussy Riot affair and Putin’s démarche from sovereign democracy to sovereign morality,” *Nationalities Papers* 42:4, 2014.

Sperling, Valerie, “Russian feminist perspectives on Pussy Riot,” *Nationalities Papers* 42:4, 2014.

Suspitsina, Tatiana, “The Rape of Holy Mother Russia and the Hatred of Femininity: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the Use of Feminine Imagery in the Russian Nationalist Press,” *Anthropology of East European View* 17:2, 1999.

Todorova and Z. Gill eds. *Post-Communist Nostalgia*, Oxford: Bergahn Books, 2010.

Yusupova, Marina, "Pussy Riot: a feminist band lost in history and translation," *Nationalities Papers* 42:4, 2014.

Гапова, Е. "Дело «PussyRiot»: феминистский протест в контексте классовой борьбы," *Неприкосновенный запас* 5:85, 2012.

Дубин, Б. "Лицо эпохи: Брежневский период в столкновении различных оценок,"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3:65, 2003.

<https://www.youtube.com/watch?v=fK4PcBSDFiA> (검색일: 2016.04.29)

<https://www.youtube.com/watch?v=grEBLskpDWQ&nohtml5=False>(검색일: 2016.04.29)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2/nov/16/vladimir-putin-angela-merkel-pussy-riot> (검색일: 2016.04.29)

http://grani.ru/users/pussy_riot/ (검색일: 2016.04.29)

<https://www.youtube.com/watch?v=GCasuaAczKY> (검색일: 2016.04.29)

<http://www.levada.ru/eng/> (검색일: 2016.04.29)

<https://twitter.com/hillaryclinton/status/452130729691201536> (검색일: 2016.04.29)

<http://www.vice.com/read/A-Russian-Pussy-Riot> (검색일: 2016.04.29)

www.regnum.ru/news/1231490.html (검색일: 2016.04.29)

<https://www.youtube.com/watch?v=R0Dkrmb24T8> (검색일: 2016.04.29)

<https://www.youtube.com/watch?v=aO0Yd2qRbK8> (검색일: 2016.04.29)

<http://rg.ru/2013/09/19/stenogramma-site.html> (검색일: 2016.04.29)

❖ ABSTRACT

Pussy Riot Affair and Gender Discourse in Russia
- Gender, Nationalism, Soviet Nostalgia

Ahn, Ji Young

In February, 2012, three members of the Russian Feminist Rock group ‘Pussy Riot’ were accused of staging a ‘Punk Prayer’ in the Cathedral of Christ the Savior in Moscow and were imprisoned for two years. This case, which sparked widespread enthusiastic support from those in the West, was viewed in Russia in quite a different way. The Pussy Riot affair very effectively shows the historic base of contemporary Russian gender discourse and gives an explanation as to why Putin’s very conservative and masculine-centered nationalistic agenda works in Russian society with such great success.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the Pussy Riot case and compare the reactions to the case published in the Russian and Western press; we then examine the historic causes of the masculine-centered nationalistic agenda of Putin’s government.

Key Words

Pussy Riot, Russian gender discourse, Soviet nostalgia, V. Putin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